

광주서 ‘文전박대’... 새정치 내홍 장기화

문재인대표 5·18참석 ‘혁신’ 강조 불구 민심 싸늘

박지원 “모든 책임은 항상 대표가 지는 것” 압박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표류하면서 당내 내홍이 장기화되고 있다.

문 대표는 18일 제35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하겠다”고 강조하며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서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문 대표가 제시한 ‘초계파 혁신기구’는 비노 진영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데 실패하면서 영수 가능성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18일 회동을 갖고 문재인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싸늘한 호남 민심=문 대표는 ‘야권의 심장’인 광주를 방문, 쇄신을 약속하며 내분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광주 민심의 반응은 싸늘했다.

전날의 전야제와 마찬가지로 일부 시민들은 문 대표와 새정치연합을 향해 “새누리당 2중대가 왜 여길 왔나”, “정신차려라. 욕을 먹어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하는 등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시민들은 5·18 기념행사가 열린 민주묘지 앞에서 ‘친노 패권에 기생하는 호남정치인은 각성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문재인은 사퇴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광주일보가 지령 2만호(27일)를 앞두고 지난 15일 실시한 광주·전남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문 대표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3.9%, 사퇴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24.3%로 나타났다. 지역 민심이 문 대표의 리더십에 상당한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날 회동을 갖고 문재인 대표가 현재 당이 처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문 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범친노 성향의 강기정, 김성곤 의원과 김동철 의원 등이 강력 반대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 “모든 책임은 항상 당 대표가 지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문 대표가 제안한 초계파 혁신기구에 대해 “지금도 혁신추진단이 있는데 혁신기구를 또 만들어서 초계파 등 똑같은 얘기만 한다면 문제”라고 비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문 대표가 ‘기득권 포기’를 전면에 내세워 광주에서 ‘회초리’를 맞은 만큼 이후 강력한 쇄신 드라이브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 비노 진영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당내 내홍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들 반영하듯,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계속되는 내홍=당 내외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계기로 당내 내홍이 수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비노 진영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는 문 대표의 입장 표명 글이 유출되면서 상황이 악화되는데다 혁신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약발이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장, 비노 진영에서는 문 대표가 내놓은 혁신기구 구성에 대해서 ‘시간벌기용’, ‘물타기용’ 등의 평가를 내놓으며 쇄신 의지 자체에 불응표를 보내고 있다.

이들 반영하듯,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 “모든 책임은 항상 당 대표가 지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문 대표가 제안한 초계파 혁신기구에 대해 “지금도 혁신추진단이 있는데 혁신기구를 또 만들어서 초계파 등 똑같은 얘기만 한다면 문제”라고 비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문 대표가 ‘기득권 포기’를 전면에 내세워 광주에서 ‘회초리’를 맞은 만큼 이후 강력한 쇄신 드라이브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 비노 진영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당내 내홍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들 반영하듯,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 “모든 책임은 항상 당 대표가 지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문 대표가 제안한 초계파 혁신기구에 대해 “지금도 혁신추진단이 있는데 혁신기구를 또 만들어서 초계파 등 똑같은 얘기만 한다면 문제”라고 비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문 대표가 ‘기득권 포기’를 전면에 내세워 광주에서 ‘회초리’를 맞은 만큼 이후 강력한 쇄신 드라이브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 비노 진영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당내 내홍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들 반영하듯,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 “모든 책임은 항상 당 대표가 지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문 대표가 제안한 초계파 혁신기구에 대해 “지금도 혁신추진단이 있는데 혁신기구를 또 만들어서 초계파 등 똑같은 얘기만 한다면 문제”라고 비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문 대표가 ‘기득권 포기’를 전면에 내세워 광주에서 ‘회초리’를 맞은 만큼 이후 강력한 쇄신 드라이브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 비노 진영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당내 내홍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들 반영하듯,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 “모든 책임은 항상 당 대표가 지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문 대표가 제안한 초계파 혁신기구에 대해 “지금도 혁신추진단이 있는데 혁신기구를 또 만들어서 초계파 등 똑같은 얘기만 한다면 문제”라고 비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문 대표가 ‘기득권 포기’를 전면에 내세워 광주에서 ‘회초리’를 맞은 만큼 이후 강력한 쇄신 드라이브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 비노 진영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당내 내홍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들 반영하듯,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 “모든 책임은 항상 당 대표가 지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문 대표가 제안한 초계파 혁신기구에 대해 “지금도 혁신추진단이 있는데 혁신기구를 또 만들어서 초계파 등 똑같은 얘기만 한다면 문제”라고 비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문 대표가 ‘기득권 포기’를 전면에 내세워 광주에서 ‘회초리’를 맞은 만큼 이후 강력한 쇄신 드라이브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반영하듯,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천정배 “野, 환골탈태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세력이 당을 대체할 수밖에”

문재인-천정배 심야 회동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17일 밤 광주에서 천정배 의원과 심야 단독회동을 가진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양측의 만남은 천 의원이 지난 3월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후 처음이다.

특히 천 의원이 4·29 재보선 광주 서구를 당선 후 독자세력화를 선언하며 새정치연합을 위협, 야권 지형재편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표로서도 밖으로는 ‘천정배발 신당론’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데 안으로는 계파갈등의 내홍이 거세지는 등 ‘내외외환’에 시달리는 가운데, ‘더 큰 혁신’과 함께 ‘더 큰 통합’을 약속한 바 있어 이번 회동에 눈길이 쏠린다.

야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표는 전날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제35주년 전야제에 참석했다가 중간에 행사장에서 나와 천 의원을 만났다. 문 대표 측에서 먼저 연락해 만남이 성사됐고, 둘은 별도 배석자 없



이 1시간 가량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광주일보 보도와 통화에서 “특별한 정치 현안을 얘기하지는 않았다”면서 “새정치연합이 쇄신에 힘쓰고 있는 만큼, 실제로 쇄신과 혁신을 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천 의원은 18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만일 새정치연합의 환골탈태가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 이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면서 “지금 밝힌 만한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심도 살펴가면서 많은 분들과 논의도 하고, 새정치연합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향후 행보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을 계획을”이라며 “‘뉴 DJ’들을 모아 새정치연합과 경쟁하는 구도를 만든다면 야권전체가 튼튼하고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연금개혁 ‘이종걸 절충안’

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

문재인 “당 입장 정립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절충안으로 기초연금 강화를 제안<광주일보 18일자 5면>했지만 당내 이견으로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도 모르게 됐다.

이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밝힌 기초연금 강화론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을 10%로 맞추고, 기초연금 지급 범위도 현재의 소득 상위 70%에서 90~95%로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강경파들은 지난 2일 여야 대표의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반면 온건파들은 이 원내대표의 의견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18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지면 다룰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논의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옳고 그름, 적정성 여부를 떠나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당내 의견이 엇갈리자 문재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대신 당내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명한 뒤 “많은 생각과 논의들을 함께 모아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립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민연금 연계 논란... 조윤선 靑수석 사퇴

조윤선 청와대 정부수석은 18일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지연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논란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조 수석이 오늘 오전 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그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이 애초 추구하셨던 대통령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과정에서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하는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조국 “친문·친노 총선 불출마·2선 후퇴해야”

취임 100일 문재인 새정치 대표에 쓴소리

이른바 ‘강남 좌파’로 불리는 서울대 조국(사진)교수가 취임 100일을 맞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다.

조 교수는 4·29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벌어지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내홍(內訌)과 관련, 지난 17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친문(親文·친 문재인)·친노(親盧·친노무현)라는 사람들이 총선 불출마와 2선 후퇴를 공개 선언해야 한다. 그 래야 새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조언했다. 그는 “무난함을 뛰어넘어야 한다. 철저적

정당성을 넘어서는 정치적 선택과 결단, 돌파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썼다.

조 교수는 이어 “과거의 DJ나 YS처럼 돌파해야 한다”면서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고 했던 노무현의 돌파력이 문 대표 예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총선 전까지 단 한 번의 기회만 남아있다”며 “혁신이다. 이게 안 되면 더 이상 문 대표에게 (국민은)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 대표는 ‘육참골단(肉斬骨斷: 자신의 살을 베어주고 상대의 뼈



를 취한다’해야 한다”며 “엄정한 기준에 따라 친노건 호남이건 모든 기득권을 잘라야 한다. 국민의 마음만 바라보고 사족생의 각오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언급하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내년 총선 서울 출마하되 강남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은 안철수 의원이 있는 노원병이나 김한길 의원이 있는 광진갑으로 나간다고 한다”며 “새누리

당 입장에서 여로모로 좋은 포석으로 반면 교사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교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35주년을 맞아 “다음 개헌 때 헌법 전문(前文)에 반드시 4·19에 대하여 5·18 이념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며 “‘불의에 항거한 4·19와 5·18 민주이념을 계승’으로 말이다”고 썼다. 그는 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과 관련하여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할 수 없다는 박근혜정부,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의 연원과 가사를 생각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은 국가가 되어도 부적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매 각 공 고

“요양병원”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매매 및 투자자)

완공 전

완공 후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9-1번지 (40m 대로변 접면위치, 건강관리협회 건너편)

대 지 : 522.3㎡(158.15평)

연 면 적 : 2,073.86㎡(627.96평)

층 수 : 지하1층, 지상8층

건축물용도 : 병원(요양병원)

허 가 번 호 : 2013-건축과-신축허가-108호(2013.10.18)

토지소유자 : 서양새마을금고

건 축 주 : 서양새마을금고

공사완공예정일 : 투자자 계약 후 3개월 완공 예정

※ 매각사유
- 대수권련 유입물건을 매각합니다.
- 유입당시 공정을 40% 진행되어 있는 요양병원 건물로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자 하신분께 매각하고자 합니다.

※ 계약특시 토지, 건물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양새마을금고
전화문의 010-7659-8900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전망과 전라남도 미래가치 분석

현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낱알이 밝히고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부동산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장 소	NC백화점(구. 현대) (10층 문화센터)
일 시	2015. 5. 19(화) 오후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사전 예약)

강/의/내/용

1. 광주·전남 개발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자처 매출 분석 및 공개
2. 15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응
3. 부동산 가격상승 핵심지역 분석
4. 돈되는 부동산 투자법 공개
- 가장 미래가치가 있는 땅은 무엇인가?
5. 소액투자로 월세받는 비법 공개
6. 실물투자(금·외환투자·원자재) 투자성공법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캐이 인터넷신문 칼럼 게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김영표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신한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